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건축도시학석사학위논문

2000년 이후 한국의 1~2인 가구 주거의
건축적 특성과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trend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ingle person housing in korea since 2000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도시학 전공
배수빈

2000년 이후 한국의 1~2인 가구 주거의
건축적 특성과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trend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ingle person housing in korea since 2000

지도교수 성 인 수

이 논문을 공학석사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7월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도시학 전공
배 수 빈

배수빈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강 영 환
이 광 희
성 인 수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2018년 7월

국 문 초 록

2018년 현재 한국의 주거문화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1,2인 가구의 증가는 현재의 주거시장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로써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인구변동 추이와 결혼과 가족의 문화, 노년층 인구의 증가 등, 주거문화의 유형적 변화가 단순 기호의 결과가 아닌, 사회 문화적 규모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1,2인 가구의 수요의 증가는 시대의 요구로 해석되며,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의 외국사례에서도 그 변화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는 가구유형의 변화가 도시과 국가의 발전과정의 한 특이점으로 이해되며 하나의 문화권의 특징이 아니라 시대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사회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의 1,2인 가구의 흐름에 대한 파악과 국내외의 사례적 분석을 통해 그 변화추이와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진행이 되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파악을 통해 현대 가구의 변화추이 속에서 1,2인 가구의 출현과 그 현상적 특징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문화의 특징과 건축문화의 관계성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1,2인 가구의 주거 문화적 특징을 알아봄으로서 공간의 제공자로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파악과 현재의 1,2인가구의 공간적 특징을 분석해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적 결과를 도출하여 한국의 1,2인 가구의 상황에 대한 적절성 판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적 근거를 제공한다.

앞으로의 1,2인 가구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 실제적인 인간다운 삶에 가까운 방향으로 발전해나가 단순 공간으로서의 특징이 아닌, 건전하고 유익한 총체적 삶의 바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적절한 리서치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사례분석을 통한 적절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건축문화에 대한 필요성의 및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의 1,2인 가구의 건축적 특성과 변화 추세에 관한 연구로서 이를 통해 한국의 가구문화의 이해와 현대도시건축의 특징에 대한 이해의 기준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목 차 >

국문초록	1
목 차	2
표 목 차	3
그림목차	3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3. 선행연구 고찰	5

제 2 장. 한국 사회에서의 가구의 변화

2.1. 가구 원수의 변화	7
2.2. 1인 가구 증가의 사회현상	7

제 3 장. 소가족 가구의 주거현황 및 문제점

3.1. 1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과 문제점	9
3.2. 2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과 문제점	10
3.3. 소가족 가구의 주거수요	10

제 4 장. 소가족 가구를 위한 주거계획의 해외 사례

4.1. 아시아의 사례	13
4.2. 유럽의 사례	18
4.3. 미국의 사례	23
4.4. 한국적 적용 가능성	25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31
------------	----

< 표 목차 >

표-1.	9
표-2.	10
표-3.	10
표-4.	26

< 그림 목차 >

그림-1.	7
그림-2.	13
그림-3.	14
그림-4.	15
그림-5.	17
그림-6.	17
그림-7.	18
그림-8.	19
그림-9.	21
그림-10.	22
그림-11.	23
그림-12.	24
그림-13.	25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현재 한국의 주거문화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1,2인 가구의 증가는 현재의 주거시장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로써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인구변동 추이와 결혼과 가족의 문화, 노년층 인구의 증가 등, 주거문화의 유형적 변화가 단순 기호의 결과가 아닌, 사회 문화적 규모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그 변화의 특징 또한 이전의 단순 공급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2인 가구의 수요의 증가는 시대의 요구로 해석되며,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의 외국사례에서도 그 변화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며 시대의 국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는 가구유형의 변화가 이미 도시와 국가의 발전과정의 한 특이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하나의 문화권의 특징이 아니라 시대의 결과물로서 파악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그 모습을 변모 하는데 있어 아직 초기 단계이며, 풍요롭고 가치있는 주거의 모습이 되기 위한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특히 공급을 위한 주거의 모습에서 누락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확충 및 삶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에 따른 수요 충족적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의 1,2인 가구의 흐름에 대한 파악과 국내외의 사례적 분석을 통해 그 변화추이와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해보고, 소가족 가구의 생활에 적합한 주택

은 어떻게 계획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현재의 1~2인 가구의 주택의 실태를 살펴보고, 커뮤니티와 삶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과 나아갈 방향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 이후의 한국 1~2인 가구로 한정하며, 최근 20여년의 추세를 통해 현재의 실태를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나아갈 방향과 그 속에서 한국적인 특징들이 구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고찰

2000년 이후 1인가구와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

1인가구의 생활특성과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 요구도(2008, 안진화, 강순주)에서는 20~30대 학생 및 직장인(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유형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하였다.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와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특성 별로 서비스에 대한 위계도를 제시하여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주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의 조사이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제안이나 프로그램적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젊은층의 인구에 대한 조사로서 1인가구의 한축을 이루는 노인인구에 대한 조사는 빠져있다.

1인가구의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2017, 유소금, 권오정, 이용민)의 연구에서는 청년 및 노인 1인가구 100명을 상대로 커뮤니티

티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와 이류를 동시에 조사하여 선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유용성이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의 선호도가 2017년 현재 이벤트성의 프로그램 보다는 실용적인 방향의 요구가 우선시 되어야함을 알 수가 있다. 조사 인원수가 적은 점이 아쉬운점이었으며, 일반화 과정과 시대에 대한 요구를 건축적으로 제안하는 부분이 앞으로 더 남아있는 점이 있다.

1인가구 중심의 도심형 코하우징 계획(2016, 김민영, 강순주, 모정현)에서는 코하우징에 대한 정의와 계획 요건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외의 코하우징 사례분석 및 인식과 공간 선호도 그리고 계획안 제시까지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그것과 국내 선호도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계획 부분이 기능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도심형 코하우징에 대한 나름의 원칙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프로그램의 조합에 머무는 수준이며,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나타나는 1인가구와 코하우징 경향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이에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한국 사회의 1~2인 가구의 변화

2.1. 가구 원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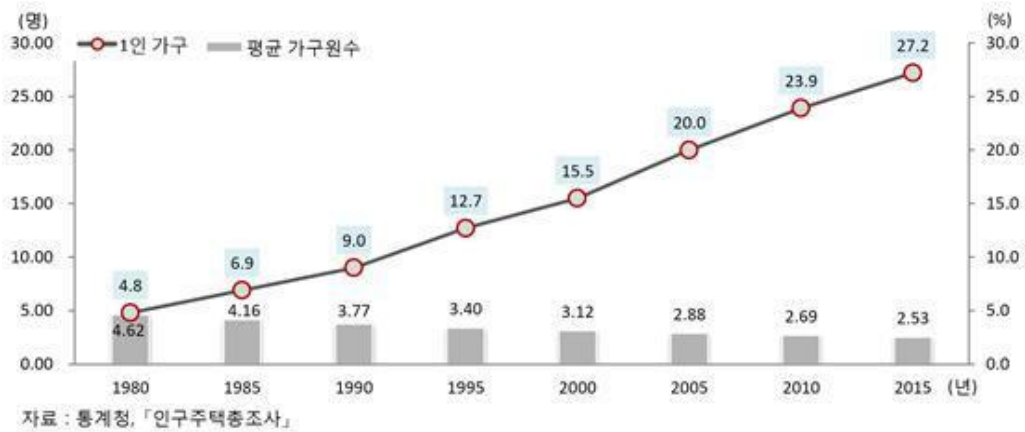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1인가구 변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부터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1인 가구 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부부+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기존의 평균적 가구 수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령층 노인 가구또한 2018년 이전보다 세배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1과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로 장래가구 추계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내년은 590만 7천 가구로 추산되며 572만 천 가구로 예상되는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 수를 추월한다.(그림 1)

2.2. 1인 가구 증가의 사회현상

한국의 인구 및 가구구조는 7,80년대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90, 200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와 풍부함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의 저 출산과 혼인감소, 이혼 증가 등 전통적 가족의 해체현상과 노년 인구의 증가, 외국인 인구의 유입 비율증가 등이 그것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한국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도시의 성장과정에서도 이어져 오는 동일한 과정으로도 보인다. 도시의 풍요와 의료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연장 시키며 노년인구를 증가 시켰으며,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현재의 실정은 저 출산이라는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다양한 새로운 가족유형이 생겨났으며, 각자의 삶의 가치관에 따른 1~2인 가구의 출현이 도래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 및 정치적 상황의 발전 및 변화로 국가의 경계가 물리적 경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의 국제적 이동과 유입이 자유로워지면서, 특히 일자리를 구하고자 국제적인 이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져 한국에도 이민자, 유학생, 근로자 등의 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여 현재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1인가구는 국내에서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소비 지향적이고 가치와 일상생활의 개인화로 인한 도시특성과 결합되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 속에서 도시 내 '싱글족'으로서 1인 가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이며 지속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주거의 공급 상황 또한 변모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부적 구조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구조의 변화 또한 격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단순 공급적 주거의 경향에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다양한 모색적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건축 프로그램과 삶의 풍경들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고급 1인주택의 출현과 단순 실질적 요구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공존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출현은 사회, 경제 계층에 따라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삶을 즐기는 문화가 더욱 발현되고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다.

제 3 장. 소가족 가구의 주거현황 및 문제점

3.1. 1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과 문제점

국내 1인가구의 유형은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기숙사, 쉐어 하우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현재 존재하며(표1), 기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세대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유형은 공간 계획 및 사적, 공적 공간의 구성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이용자 특성에 따른 1인 가구 주택의 유형이 확립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1인가구는 국내에서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정의 하고 있다. 국내 1인 가구의 주택 유형을 통해 1인 가구의 문제점을 검토 한 결과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작은 규모 내에서 생활의 어려움, 환기나 소음 등의 환경적 불편함, 혼자 거주하는 특성으로 주택의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단절로 인한 외로움 등의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의 다양성과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요구도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표 1. 1인가구 주택유형 및 문제점

주택유형	문제점
고시원	-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나 시설이 열악함 - 5평 미만인 규모도 있음 - 실내 환기시설 미흡 - 소음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원룸	- 중복도 형식을 취하고 있어 채광과 소음에 취약함 - 작은 규모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쉽게 느낌 - 이웃과의 단절된 소통
오피스텔	- 고시원, 원룸보다는 값이 비쌌 - 가격에 비해 협소한 시설 - 상업가 인근 위치로 소음 다수 발생
기숙사	- 룸메이트와의 관계 불안감 - 대규모 인원 거주로 인한 소음 다수 발생 - 구성된 커뮤니티에 비해 원활하지 못한 운영
쉐어하우스	- 개인 보안 침해 문제가 발생 - 1인실이 아닐 경우 룸메이트와의 관계 불안감 - 원활하지 못한 공동 생활 시설 사용

3.2. 2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과 문제점

단순 싱글족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부부(딩크족)등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2인가구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셰어하우스를 비롯한 코하우징의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주거들은 싱글하우스와 다른 형태와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실내 가구의 다양한 활용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종류에는 아파트형 투룸, 타운하우스, 오피스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있다. 또한 1~2인 가구의 국내 유형은 그 수요나 요구도가 아직은 단순 공급과 실질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아직 사회적 트렌드나 문화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단편적인 구조라 할 수가 있다.

3.3. 소가족 가구의 주거 수요

표 2. 서울시 1인가구 2005~2030 장래 가구추계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서울	743,751	805,460	871,968	927,597	972,143
증감	-	61,709	66,508	55,629	44,546

표 3. 서울시 1인가구 주택수요 예측 결과

연도	총면적	총호수	순증가분
2010	31,985,366	680,680	-
2015	34,639,357	737,156	54,476
2020	37,499,745	798,156	60,868
2025	39,892,246	848,937	50,912
2030	41,808,088	889,706	40,769

서울시 1인 가구 수요예측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표2,표3) 향후 1인가구의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주택공급의 수요 또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이러한 1~2인 가구는 내부적, 구조적, 외부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신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1인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최소화되고 컴팩트한 평면과 2인이 거주하기 편리하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축약적 평면이 주를 이룬다. 또한 집합주거의 형태로 갈수록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역할이 내부의 기능보다 커지는 요구와 추세가 있으며 수요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1인가구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싱글족이 늘고 있고 특히 20~30대 독신여성이 문화와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며 ‘싱글 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제시할 만큼 보편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주택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는 ‘쉐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양식으로 등장, 활성화 되어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등 20대 젊은 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일본 전역에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도 ‘두레주택’이라는 쉐어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나 연구는 아직 충분치 못한 수준으로 쉐어하우스에 대한 연구 및 쉐어하우스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코하우징 형식의 같이 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소가족 가구의 모습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모습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모습으로서의 출현을 기대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 한국적 정서로 걸러진 모습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문화와 사회가 각자 자신의 모습으로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한국도 이러한 모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4 장. 소가족 가구를 위한 주거계획의 해외 사례

4.1. 아시아의 사례

4.1.1. 시노노메 캐널코트 고단



그림 2. 시노노메 캐널코트 고단 전경

2003~2005년에 일본 시노노메에 지어진 캐널코트(그림2)는 야마모토 린켄, 이토 도요 등이 참여하여 지어진 대규모 집합주거단지이다. 쾌적한 거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초고층에 필적하는 고용적을 14층 이하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연구가 토론되고 진행되었다. 선룸형 욕실이나 투과형 현관 등, 채광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채택된 새로운 기획주택이 제안되었으며, 뉴욕을 모델로 한 중앙의 S자형 가로에는 점포나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저층동 상부는 녹화에 의한 조경 및 우드데크를 설치하여, 가로와 같은 이동 동선과 건물 사이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도시공간의 창출을 의도하

였다. 합리적으로 풀어낸 공간 평면에서 공용공간에 대한 배치가 적절히 돕으로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적인 커뮤니티 공간과 개인의 삶의 공간이 합리적으로 풀어져 있으며, 심미적 결과 또한 도출 하였다. 각 커뮤니티 공간의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단계적으로 1차, 2차 커뮤니티 공간을 두어서 그 다양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도시의 스케일까지 자연스레 연결되면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완성시켰다.



그림 3. 시노노메 캐널코트 고단 전경

4.1.2. 램쿨하스, 싱가포르 인터레이스

이 싱가포르 아파트는 The Interlace(더 인터레이스)라고 불리며 OMA(The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Ole Scheeren 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2013년 시공을 시작으로 2015년 1,040개의 유닛을 가진 아파트로 완성, 특히 170,000 미터 제곱에 달하는 공개공지는 좋은 휴양지 호텔의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파트에 대한 이런 새로운 해석과

독특한 디자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삶의 중심인 내 생활공간이 즐거움과 여유로 가득한 주거 공간을 탄생시켰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집을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OMA는 공개공지에 집중하였다. 공개공지에 단순히 쉬는 공간 및 놀이터만이 아닌, 다양한 레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블록 형태를 쌓아올린 듯한 디자인도 블록 탑층 즉 옥상 공간을 공개공지로 최대한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단순 공급 개념을 넘어 삶의 질까지 생각했기에 가능한 결과물이며, 보통 아파트는 부지 활용을 위해 수직으로 올리지만 더 인터레이스는 이 같은 프로토타입을 깨면서 수평적 확장을 시도했다. (그림 4,5,6)



그림 4. 싱가포르 인터레이스 전경

또한 인터레이스는 이 같은 수평적 확장을 통해 동에 따라 고립되는 건물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상호 연계되어 내외부공간이 조화되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이런 디자인이 자연친화적이면서 각종 오락시설을 구비한 공개공지와 만나면서 아파트 내에서도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아

파트의 격은 물론 생활의 격까지 한층 끌어올려 놓았다. 더 인터레이스는 같은 길이의 6층짜리 블록 3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각형 모양으로 서로 얽혀져 있다. 이 모양을 따라 8개의 넓게 개방된 코트야드가 제공된다. 또한 각각 나누어진 블록을 통해 스카이 가든과 루프테라스도 제공한다. 수직으로 높게 솟은 아파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크기의 부지와 격 높은 여유 공간이다. 이와 같은 개방된 공용 공간을 통해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을 해결하고 동시에 이웃 간의 커뮤니티를 유려하게 만든다. 디자이너는 “멀티플 인도어 아웃도어 스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공간과 쉼어 공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아파트 디자인”이라는 설명을 했다.

인터레이스는 한국의 법적 공간인 공용공간의 극대화된 케이스이며, 이는 시대적 요구가 건축에 투영된 결과물로 해석된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개인의 공간의 풍요가 공용공간의 질적인 향상으로 인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된 결과물을 도출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5. 싱가포르 인터레이스 조감도



그림 6. 싱가포르 인터레이스 전면부

4.2. 유럽의 사례

4.2.1. 미드고즈그룹펜 시니어 코하우징, 덴마크

덴마크는 시니어 코하우징의 선진국가이다. 미드고즈그룹펜 시니어 코하우징은 덴마크 최초의 시니어 코하우징이다. 1984년부터 87년까지 구축되었으며, 1987년 6월에 입주하였다. 전체 주민 20명의 연령은 65~90세고, 이 중 6명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Cooperative housing, 합동주택)’은 노인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에서 시작되는데, ‘코하우징’도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주거형태이며, 덴마크 최초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1987년 6월 입주한 미드고즈그룹펜 시니어 코하우징이다. 이곳의 전체 주민은 20명, 연령은 65~90세로 이 중 6명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그림 7)



그림 7. 미드고즈그룹펜 시니어 코하우징

코펜하겐 북쪽 뇌어브로역에서 약 400m 떨어진 뢰른너파켄에 위치한 공영 임대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이곳에는 코펜하겐의 공영 주택회사인 라이에보에서 지은 560채의 아파트가 있다. 이 중에 48번지와 50번지 5층 아파트의 4개 열에 미드 고즈그룹펜이 위치하고 있다. 미드고즈그룹펜은 건축회사 뱅 터만슨이 기존에 있던 5층 아파트 단지 중 4개 열을 시니어 코하우징으로 개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 4개 열에 2개의 코먼하우스와 16개의 개인 아파트가 있다. 주민들은 자기 아파트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1층의 코먼하우스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므로 서로 자주,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있다. 널찍한 코먼하우스에는 공동 거실, 식당, 회의실, 부엌, 창고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뒤쪽으로 나가면 텃밭 또한 갖추어져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코하우징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만족도와 심적인 자부심 또한 가진다. 미드고즈그룹펜은 5층 아파트단지를 개조해 만들었는데 1층엔 공동 거실, 식당, 회의실, 부엌, 창고가 마련된 코먼 하우스가 있다. (그림 8)



그림 8. 미드고즈그룹펜 시니어 코하우징

코먼하우스에는 TV 두 개, 부엌 두 개, 식당 겸 회의실 두 개, 세탁실, 화장실, 운동실, 창고가 갖추어져 있다. 두 개의 부엌과 식당이 각각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시에 다른 모임을 가지기에 편리하다. 공동 거실에서는 직접 테라스와 정원으로 나갈 수 있어서 여름에는 잦은 모임을 가지기에 적합하다. 이곳의 주민들은 활발한 공동 모임이 많고 참여도도 높은 편이며 주민들은 함께 모여서 조리, 식사는 물론, 게임을 자주 하며 여름에는 공동 정원을 가꾸고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텃밭에 나가서 채소도 가꾼다. 특히 개인과 공동체 공간이 반반씩 공존하는 반 공동체적인 주거지 ‘시니어 코하우징’은 친구 또는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곳의 코하우징은 시니어 코하우징의 가장 교과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선의 자연스런 유도와 그에따른 다양한 행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확장 발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건축적 이상이 실현되었다.

4.2.2. 페르드크네펜,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노인 주거복지가 잘 발달돼 있는 스웨덴은 국가 예산의 1/3을 복지비용으로 지출하고 덕분에 ‘코하우징’도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설립된다. 대표적인 실버 공동체으로는 1989년 지어진 스톡홀름의 ‘페르드크네펜’이 있다. 건물 내 식당, 세탁실, 사무공간, 도서관, 옥상정원 등 공용시설이 다양하다. 페르드크네펜은 40대 이상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입주민 43가구 중 절반 이상이 은퇴한 시니어들이며, 이들은 6주에 한 번 정도 함께 요리와 청소를 하고, 다채로운 문화 활동도 즐긴다. 입주자들은 ‘노년이 되면서 잃었던 사회 경험을 집이라는 공동체에서 다시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덴마크와 비슷하지만 다른점은 정부주도

적 차원에서 마련된 코하우징이란 것에 더욱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제공이 단순 공급의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그림 9. 페르드크네펜

4.2.3. 더 컬렉티브 올드 오크

2015년에 완공된 영국 런던 월섬애비에 있는 ‘더 컬렉티브 올드 오크’는 외관부터 차별화 된다. 피엘피(PLP) 아키텍츠의 작품으로 외관은 전체가 통창이며 무려 546개의 방이 있다. 즉 546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풍경이 만들어진다. 개인공간으로는 부엌이 딸린 스튜디오 또는 공용 부엌을 쓰는 스튜디오를 택할 수 있고, 그 외 사우나, 피트니스 클럽, 영화관, 도서관, 카페, 루프탑, 심지어 슈퍼마켓까지 있다. 개인공간의 크기는 10m² 정도이며 월세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멋진 환경에서 유행을 만들어가며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1인가구의 유토피아로 인식한다. (그림 10)



그림 10. 더 컬렉티브 올드 오크

시대의 상황은 단순히 공급의 차원이 아닌 풍요의 수준을 높여 새로운 이미지적 공간을 창출 하였다. 시뮬라시옹으로 대변되는 이미지에 대한 가치는 1인 주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이곳에 모이는 수용 인원들은 이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치와 소속감을 가진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하나의 거대한 젊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며 사회를 만들며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며 지낸다. 이곳의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인식되며,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이미지적 사회에 대한 요구가 늘 존재하며 과거 타워팰리스나 기타 주거시설이 가지는 부와 권력의 이미지가 1인가구 유형의 코하우징

시설에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이다.

4.3 미국의 사례

4.3.1. 위리브, 맨해튼



그림 11. 위리브

2016년 말 위워크의 화려한 성공에 이어 ‘위리브’를 론칭한 창업자 미구엘 맥켈비가 오픈한 맨해튼 지역의 위리브는 부티크 호텔급의 공간을 제공한다. 뉴욕의 가장 중심인 맨해튼에서 사는 즐거움과 부유하고 똑똑한 이들과 함께 살며,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자체와 삶을 누리는 특권을 제공한다. 비용은 월 300만원 정도이고 만만치 않은 금액이나, 뉴욕에는 이처럼 소위 ‘힙스터’를 공략하는 코워크 및 코리빙 공간이 점점 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소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림 11,12,13)

이 또한 앞선 영국의 예와 같이 이미지적 코하우징의 다른 예라 할 수 있으

며 그 가치가 더욱 극대화 되고 세분화 된 예라 할 수가 있다. 뉴욕의 상황을 염두하면 바쁜 라이프 스타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도시에 분산된 카페, 클럽, 근린시설들이 하우스징속에 고급화로 유입되면서 자연스레 코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성되었고 이를 통해 공동체 문화가 창발되는 현상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소수를 위한(각 문화권 인종별, 성소수자별, 동호회적) 커뮤니티 공간의 분화는 이러한 1인가구의 주거 시스템이 기존의 사회현상을 더욱 쉽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예가 된다.



그림 12. 위리브



그림 13. 위리브

4.4. 한국적 적용 가능성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주거의 구조적변화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유되는 공간에 대한 활용과 아이디어가 삶의 질적인 향상과 맞닿아 사회전반적인 현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례에서 보다시피 셰어하우스 및 코하우징이 내세우는 공간은 환경보호, 경제 불평등에 대한 극복, 집세를 아끼기 위한 메이트 연결 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된 인테리어, 호텔식 서비스,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등이 어우러진 ‘함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공동주택이 제도적 장치와 부동산적 가치에 아직 머물러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수요와 가치창출의 기회를 봤을 때 한국 시장도 충분히 이러한 수준의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서 개선되어 나아가야 될 점이라고 인식 된다. 특히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 자기 계발이나 인적 교류를 위한 다양성이 필요하며 단순히 공간 제공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인식의 변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앞선 사례조사를 정리 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외국 소 가구 주거 해외사례 정리

국가	이름	대상	특징
일본	시노노메 캐널코트 고단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공간의 합리적 배치 - 프라이버시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단계적 시스템적 분류 (개인 공간 - 약간 오픈된 개인공간 - 2~3인의 공간 - 모두의 공간) - 일본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합리적 심미적 결과
싱가폴	더인터레이스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의 극대화 - 블록형 매스를 수직적으로 어긋나게 함으로써 sky 공간에 그라운드 레벨의 오픈 스페이스를 창출 - 고급화 전략(호텔급 서비스) - 배치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공간 및 커뮤니티 창출
덴마크	미드고즈그룹펜 시니어 코하우징	시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을 동선적 배치를 함으로써 자연스런 커뮤니티 유도 -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를 통해 유연하게 계속 바뀌어 가는 구조 - 참여를 유기적으로 유도하는 공간 구조
스웨덴	페르드크네펜	시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적, 제도적 기반 - 단순 공급이 아닌 실질적 필요와 그것들이 자연스레 일어나기 위한 공간 구조 및 서비스 제공
영국	더 컬렉티브 올드 오크	청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적 사회계층 창출 - 세련되고 고급된 전략 - 기본 편의 시설 제공 및 새로운 형태의 편의 시설 융복합 - 공동체로서의 사회확장 가능성
미국	위리브	청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적 사회계층 창출 - 세련되고 고급화 전략 - 소수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시설 확장 - 새로운 공동체 창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첫째, 지금의 시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요구의 파악 및 분석이 제일 우선 시된다. 선행연구 분석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연구와 인식의 방향이 단순히 요구도 분석과 가구내에 인테리어적 변화의 다양성 정도에만 그치고 있는 지금에서 벗어나 실질적 운영과 접근, 이웃과 도시와의 관계, 입주자간의 자연스런 소통을 위한 공간 관계 계획, 프라이버시와 공용공간의 적절한 위계와 배치정도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사회 문화권적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국내의 시대적 흐름이 단순히 주거 공급의 시대가 아닌 실질적이고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작업의 수행이 개인이나 소수 단체가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특히 1인가구를 구성하는 소수 약자(미혼모, 노인)들이 더욱 더 적절한 혜택과 삶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소수적 삶의 다양함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세분화된 공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단순히 같이 모여 산다가 아닌 ‘잘’ 모여 산다로 바뀌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모여산다는 가치 자체가 사회적 가치로 인식된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인 아파트를 예를 들면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와 생활관이 투영되어졌다고 보기에 어렵다. 현재는 1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른 아파트 타입에 세대수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더욱 세분화 되고 더욱 특이한 커뮤니티를 위한 주거문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의 워리브가 현재 그러한 경향과 문화를 앞서 만들어 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한국 사회도 한국 내의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주거가 발현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적 커뮤니티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각 나라의 문화권마다 저마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그에 따른 커뮤니티의 모습도 당연히 다양할 것이다. 한국의 삶의 모습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만의 커뮤니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과거에 ‘마당’, ‘시장’의 공간이 현대에 들어서면

서 그 모습과 역할이 끊임 없이 변모되고 있다. 뒷마루 하나조차도 커뮤니티의 역할이 있었다. ‘광장’과 ‘도서관’, ‘목욕탕’ 등이 로마에서 출발한 커뮤니티 문화라면 한국의 정서와 시대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은 무엇일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이상 연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1~2인 가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시대적 반응을 통한 건축적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커뮤니티 공간등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각 계층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인 가구의 추세는 현재 사회의 새로운 그리고 자연스런 생활방식으로 자리잡힐 것이며, 이러한 결과물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크게 ‘쉐어 하우스’와 ‘코하우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크게는 청장년층과 시니어, 그리고 그것이 결합된 형태의 주거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소수자들을 위한 특색있는 주거형태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2인 가구라는 특징은 과거의 대가족이나 핵가족 제도에서 가지지 못한 다양성이라는 특색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된다.

쉐어 하우스는 하나의 주택 안에서 개인적인 공간을 나뉘쓰고 동시에 주방과 거실 등 공동체 공간을 함께 쓰며 독립가구가 갖게 되는 외로움을 서로 달래는 개념이다. 그리고 코하우징은 이보다 규모가 큰 형태로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 나아가 마을을 만들어 모여 살면서 공동체간에 소통하면서 지내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쉐어 하우스는 하나의 집을 나뉘쓰는 방식이라면, 코하우징은 독립된 가구를 유지한 채 하나의 건물 또는 마을에 모여 사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쉐어하우스는 보통 1인 가구에 한정되지만, 코하우징은 기존의 가족단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어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며 미래의 주거 형태로도 떠오르고 있다. 소수자들을 위한 하우스는 아직 네이밍은 없지만 이또한 분류되어 새로운 형태의 주거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의 사회를 볼 때 다양한 문화권의 인구 유입과 그 동안 인정받지 못한 소수문화의 사람들, 그리고 각종 동호회, 소통수단의 발달(SNS나 디지털 커뮤니티)에 따른 크고작은 다양한 집단이 주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1,2인 가구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 실제적인 인간다운 삶에 가까운 방향으로 발전해나가 단순 공간으로서의 특징이 아닌, 건전하고 유익한 총체적 삶의 바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적절한 리서치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사례분석을 통한 적절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건축문화에 대한 필요성의 및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학술 및 학위논문>

- 최준환, 박서준, 이도훈, 「1인가구 공유주택의 공유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6
- 김민형, 강순주, 모정현, 「1인가구 중심의 도심형 코하우징 계획」, 건국대학교, 2016
- 안진화, 강순주, 「1인 가구의 생활특성과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 요구도」, 건국대학교, 2016
- 유소금, 권오정, 이용민, 「1인가구의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건국대학교, 2017
- 이희원, 성민호, 유정원, 이장범, 이기석,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쉐어하우스의 건축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2014
- 이정수, 박재승, 「2,30대 1인 가구 주거공간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2016
- 오정, 최정민, 「국내 쉐어하우스 수요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2014
- 신미림, 남진,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서울시립대학교, 2011
- 조민정,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거의 계획 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2011
- 이학성, 이연숙, 「소형주거공간의 효율적인 공간사용을 위한 특성에 따른 유형화 연구」, 연세대학교, 2016
- 신소정, 지은영, 오지은,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실태분석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단행본>

구보타 히로유키, 「쉐어하우스」, 클, 2013

고야베 이쿠코, 「컬렉티브 하우스」, 클, 2013